◈며느리 권씨 열전 22-2

괴담 배상열의 어머니 안동 권씨 (복야공파 28世, 권경여權慶餘의 딸)

특히 그는 16세에 천문을 관측하는 혼천의(渾天儀,(선기옥형))를 만든 이후, 21세와 27세에 다시 제작하고 수정하는 등 천문 분야에서 놀라운 천재적 역량을 발휘했다.

28세 때 편찬한 '서계쇄록' 하편은 수론(數論)에서 시작하여 각종 산법(算法)에 이르기까지 두루 아우른 본격적인 산서(算書)로, 배상열의 수리 사상이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다.

앞선 시기에 나온 최석정의 '구수략(九數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구체적인 산법과 운용의 측면에서 형이상학적 색채를 철저히 탈피하였다는 점에서, 18세기 말 조선 지식인들의 변화된 수리 사상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학술대회에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자 5명이 참석하여 괴담 배상열의 생애와 교유관계는 물론, 성리학과 역학, 천문 및 수리 사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되었다. 인구 3만의 작은 곳에 300여명이 모여 어려운 이야기에 귀를 기우리고 감탄하니 봉승왕화(奉承王化)의 고장임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다.

그리고 간단한 그의 프로필은 1759(0) 12월 25일, 안동부 내성현 유록마을에서 태어나다.1766(8) 괘상(卦象)을 본떠 그리다. 1768(10) 천문을 살펴 알다. 1769(11) 바깥에서 스승을 구하여 수학하다. 1774(16) 선기옥형을 제작하다. 1779(21) 다시 선기옥형(璇璣玉衡)을 제작하다. 1780(22) 겨울, 소사에서 "주역"을 읽다. 첫째 아들 배현두가 태어나다.1781(23) 1월, "태고몽기"를 짓다. 9월, 대산 이상정에게 나아가 배우다.이상정의 권유로 '대학'등 유학을 태백산에서 3년간 공부하다.12월, 이상정의 상을 당하여 질을 착용하다.1783(25) 둘째 아들 배현기가 태어나다. 1785(27) 선기옥형을 수정하다. 1786(28) 겨울, "서계쇄록", "도학육도"를 짓다. 1789(31) 봄, 알성과에 응시하러 가는 선비들을 따라 서울에 올라가 풍물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단양에 들러 옥순봉 등을 유람하다. 4월 14일, 졸하다. 10월 20일, 유록동에 장사를 지내다. 1811 아들 배현두가 문집을 목판으로 간행하다. 1852 11월, 녹동리사에 배향되다. 1871 3월, 통훈대부 사헌부감찰에 증직되다.

그러나 이제 부터 괴담 배상열 선생에 대한 연구는 그 서막이며, 더 나아가 봉화를 넘어 조선 사상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고 또 그의 사상을 전파하고 기념하는 공간의 조성도 곧 이루어 질 것이라 믿는다. 비록 그의 연구가 미완성이라 하더라도 그 짧은 기간에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그 통섭의 장을 만들려고 한 아이디어는 대단하다.

그리고 그가 주는 진정한 교훈은 '위인지학(爲人之學,과거시험) '이 아니라 '위기지학(爲己之學,수기치인) '의 진정한 실천자였고, 그 결정판인 '도학육도'는 이 시대에 다시 생각해볼 대단한 저작이다.

이제 그에 대한 연구는 그와 연관된 문집의 분석 그리고 유록마을(呦呦鹿鳴, 사업추진 위원장 배기면)이 가지는 명승과 충열의 역사적 의미등을 다시 집적 정리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

그의 가난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일찍일어나 불을 지피면 따라가 자신이 하고, 물을 길으면 안타까워 대신하면서 효의 의미를 가르쳐 준것이 더 큰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배상열은 백죽당 배상지의 14대손이고 배상열의 조부는 배행목(裴行睦), 부친은 배집(襄紺)이고, 모친은 안동 권경여(權慶餘)의 따님(복야공파 28世)이다. "흥해배씨족보(興海裴氏族譜)"에 따르면, 할아버지 배집은 갑술년(1754) 생으로 적혀 있다.

그의 모계인 복야공파의 이력은 이렇다.

배상열-배집(裴緝)妻-27경여(慶餘, 贈호조참판 종2품, 子택신효행, 84세)-26사석(師錫, 贈좌승지, 정3품, 67세)-25시행(是行, 贈사복시정, 정3품, 72세)-24광오(廣吾, 통덕랑, 정5품, 66세)-23호신(虎臣, 참봉, 효행, 향시, 서원배향, 72세)-22인(寅, 봉사, 85세)-21기수(期壽, 87세, 壽職통정대부)-20침(琛, 서부참봉)-19숙형(叔衡, 사맹, 정8품군직)-18개(玠, 창신교위, 정5품)-17계경(啓經, 횡성공, 현감, 權 증조부, 증손-贈가선대부)-16후(厚, 중랑장, 정5품)-15인(靷, 예의판서, 2급, 장원급제, 판서공종중)-14세진(世珍, 판전객사사사)-13구(具, 봉순대부, 대호군, 정4품)-12윤평(允平, 贈추밀원부사, 정3품)-11자여(子輿, 검교대호군)-10수홍(守洪 파조, 추밀원부사)-9중시(仲時)-8이여(利輿, 호장, 향리)-7염(廉, 호장동정7품)-6선개(先蓋, 호장동정, 7품)-5자팽(子彭, 호장정조, 7품)-4균한(均漢, 우일품별장, 7품)-3책(冊, 호장정조, 7품)-2인행(仁幸, 낭중공, 5품)-1始祖(권행, 시조, 태사공)

추밀공파가 많이 출연하다가 복야공파로 나오니 시조로 부터 훑어 보았다. 10世 권수홍 파조로 부터 17세를 이은 권경여의 사위가 배상열의 모친인데, 배상열의 외가는 외조부 권경여가 84세, 외증조부 64세, 외고조부 72세, 85세, 87세 등으로 지금 기준으로도 정수한 집안이다.

또 하나는 외조부 권경여는 자식의 효행으로 호조참판이라는 증직을 받았다. 그리고 그 위에도 효행으로 서원배향등이 눈이 뛴다.

즉 배상열이 효자인 것은 이 외가의 영향도 크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유록마을은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유록마을'은 54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마을이다. 시경에 나오는 '유유녹명'(呦呦鹿鳴)에서 유래했다. '어린 사슴이 서로 즐겁게 부르며 뛰노는 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록이란 이름은 아마도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마을 앞으로 내성천이 흐르고 호골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 대대로 충신과 열녀가 이어졌고, 학문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 후손들은 선조들의 깊은 뜻이 담긴 '유록'을 오늘에 맞게 해석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테마형 체험마을 '아기사슴 별별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마을에는 유록마을이 배출한 훌륭한 조상들의 발자취를 재현한 3개의 길이 있다. '청렴의 길'과 '충렬의 길', '천문의 길'이다. 첫 시작은 '청렴의 길'이다. 황해도관찰사를 역임한 '임연재 배삼익'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1564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박사와 호조좌랑을 거쳐 풍기군수와 양양부사를 지냈고, 부패를 바로잡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배삼익은 공사구분이 엄격했고, 관청의 재산을 사재보다 더 아꼈으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다. 마을 입구에 '서애 류성룡'이 지은 신도비가 서 있다.

이러한 유서깊은 곳의 유래를 되새기고 땅이 주는 영험함, 인간이 가지는 태도 이것이 천시와 지리와 인화가 합하여 만드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鹿鳴〉은 임금이 귀한 손님을 위해 잔치할 때 쓰던 악곡이다. "유유(呦呦)" 울음은 울음인데 '기분 좋은 울음', 사슴의 소리 답게 느긋하고 우아하다. 유순한 품성의 성서로운 동물 하면 대표적으로 사슴 아닐까? 먹거리를 만나면 다투는 일 없이 무리지어 함께 먹는 습성을 가졌다고 한다. 과연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멋진 상징과 은유가 될 만한다.

시어의 적절한 반복과 변화가 주는 매력을 짚어보자. 모든 절이 "유유녹명(呦呦鹿鳴)"로 시작해 "식야지(食野之~)"로 이어지고 끝 글자만 바뀌며(苹→蒿→芩) 반복된다. 음악적 기교이자 들풀 우거진 대지의 풍요로움도 전해준다. 절마다 반복되는 "아유가빈(我有嘉賓)"은 현대에도 어울리는 좋은 구어적 표현이다. 고상한 출전 덕분인지, 입에 올렸을 때 불가사의한 멋스러움이 감도는 듯하다.

"고슬취생(鼓瑟吹笙)" "취생고황(吹笙鼓簧)" "고슬고금(鼓瑟鼓琴)"에 들어있는 '고(鼓)'는 모두 동사다. 현악기-관악기-타악기가 망라된 악단이 상상된다. 성대하고 구색을 갖춘 연회임을 알 수 있다.

중원 각국의 민요(風)-궁중 의전음악(雅)-제례음악(頌), 그 중 '雅'가 大雅(조회용)-小雅(연회용)로 나뉘어 〈시경〉은 총4편으로 이뤄진다. '小雅'편의 첫 장을 장식하며 주나라 예악문화의 품격을 보여주는 작품이 〈鹿鳴〉이다. 공자가 이상향처럼 그토록 동경하던, 술자리조차 격식과 규범을 추구했던 시대의 한 풍경이다. '禮樂'이야말로 공자에게 삶 그 자체였다. 존재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유지시키는 틀 인 '禮', 그걸 채우는 '樂'. 인생 고비고비의 인간정신은 樂(시+음악)의 형태로 禮에 담겨 표출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鹿鳴〉의 유구한 인기는 실로 엄청나다. 유교적 이상국가를 지향한 조선에선 당연히 중시되었고, 심지어 19세기 후반 전면적 서구화 '탈아입구(脫亞入歐)'에 매진하던 메이지 일본조차 유럽형 최고급 사교클럽 이름을 '鹿鳴館(로쿠메이칸)'이라 했다. 그러고 보니 주나라 예악문화의 일단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바로 세계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악'. 이를 동아시아 중세질서 속 조선왕조의 '문화적 보편주의, 심미주의'가 전해준 '기적 같은 골동품'이라 부르고 싶다.

이렇듯 유록마을의 유록이 주는 그 심오하고 평범하며 원초적인 느낌속에 권문의 딸이 와서 괴담 배상열을 낳고 기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태고 천토(太古天土)라는 네글자의 신비를 설명하는 배상열의 기발한 생각은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글 권오철 기자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은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할 세법상 신고기일과 납부기일(2)

권오형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

III. 가산세의 종류

다. 법인세법상 가산세

1)무기장가산세

법인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2)주주등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내국법인이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주주 등의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및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액면금액의 0.5%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3)증빙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가산세율=적격증빙서류 미수취금액×2%

4)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내국법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5)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치 않거나 지급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1%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를 부과

6)계산서 관련 가산세

법인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하거나 받은 경우에 관련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타인 명의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

7)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가산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또는 0.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8)신용카드미발급 가산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및 미보관시는 0.2%를 부과

9)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1%(현금영수증의 경우는 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10)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의 1%의 가산세를 부과

라.소득세법상 가산세

1)영수증수취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치 않거나 제출한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및 약국을 개설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0.5%

3)공동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동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미등록·허위의 경우-당해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5%

나)무신고·허위신고의 경우-당해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1%

4)장부기록·보관(무기장)불성실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는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장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5)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나)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6)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7)①지급조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②적격증빙불비가산세 ③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가산세 ④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⑤기부금 영수증 관련 가산세 등은 소득세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법인세법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수승화강(水昇火降)

체상용(體相用)이라는 말이 있다. 체는 모양을 상은 성질을 용은 작용을 뜻한다.

그 중에 상(相)은 성질이다.

자연상태의 물(水)의 성질은 아래로 향하고, 불(火)의 성질은 위로 향한다.

그러므로 두 성질이 서로 만나 교류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 두 성질(에너지)이 만나 교류하면 생명을 탄생시킨다.

사과나 복숭아 등 과일에는 수분(水)이 있고 그 위에 햇볕(火)이 쪼이면 과일도 생명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 속에 벌레도 같이 자라난다. 누가 과일 안에 벌레 알을 넣지를 않았는데 말이다.

지구상에 무수한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은 햇빛이 내려오고 바다와 지상의 물이 기화(氣化)하여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화(水火)의 일련의 과정을 수승화강(水昇火降)이라고 한다.

한의학의 핵심이 수승화강(水昇火降)이다.

몸의 상체에는 심장(火)이 있고, 하체엔 신장(水)이 있다. 나이가 들면 점차 두 기운이 교류 순환하질 못해서 몸에 이상이 찾아온다. 각종 병의 원인은 이 하나뿐이다. 한의사들의 온갖 사술과 처방은 수(水)와 화(火)를 교류케 하려는 것이다.

기(氣)가 혈(血)을 이끄는데, 하지정맥류 등은 수기(水氣)가 위로 오르지 못하는 증거이다. 수와 화가 따로 노는 것이다. 즉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수승화강시켜 청춘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는 것일까? 분명한 방법이 있다. 쑥과 마늘을 훈연해서 발열(發熱), 발기(發氣)하면 피가 더워져 쉽게 올라가고 피끓는 젊은이로 돌아가게 된다.

자율신경(自律神經)

어느 목사의 묘비에 새겨진 글귀이다.

"살려는 노력은 삶이 아니다. 나이 들어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그렇다.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지는 것이다. 살겠다고 노심초사(勞心焦思)하지 말고 뜻있는 일에 목숨을 던지자는 말이다. 예수님은 말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버려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들에 풀과 꽃을 보라! 저들은 심지도 가꾸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잘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내 몸이 사는데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호흡도 맥박도 피의 순환도 모두 저절로 이루어 진다. 의학용어로 표현하자면 자율신경계 덕분이다.

질병의 원인은 90%이상이 욕심에서 발생하는 우리네들의 세상사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때문이다. 보다 대범(大汎)하고 이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위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의 교훈을 시리즈로 나열한 것이 산상수훈이다. 그 내용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임이요" 가 첫 문장이다. 이 마음의 비움의 힘은 가히 폭발적이다. 천재적인 지혜가 발현되기도 하고, 몸을 위축시키던 잠재적 기억들(잠재능력)이 튀어나와 자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수 많은 종교와 수련단체들이 마음을 들먹이지만 그 실체를 알지 못하니 이상한 소리들만 늘어놓는다. 마음은 기억(정리된 생각)의 축적이며, 이 생각(필자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한다)을 쉬면(굶기면) 마음은 바로 없어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解脫)이다.

세족식(洗足式)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대야에 물을 가져야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스승이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였다. 또 성서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니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숴질 것이다" 예수님의 발씻김을 기념하여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세족식'이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회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좀 더 다른 뜻을 더하고자 한다.

앞장의 '시종의 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니 문제는 발에서부터 풀어야 한다. 발판, 발기, 발생, 발정, 발달, 발전, 발화, 발포 등은 모두 '동성상응'이다.

몸에 병이 들었다면, 발을 살펴보자!

- **엄지** – 간염, 간경화, 간결석, 담석, 시력장애, 기관지 천식, 폐렴, 대장염, 위염, 당뇨
- **검지** –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중풍, 안면마비, 자폐증, 변비
- **중지** – 위염, 위궤양, 췌장염, 당뇨, 간염, 간경화
- **약지** – 해소, 천식, 기침, 가래, 골다공증, 좌골신경통, 간염, 간경화, 갼결석, 담석, 설사, 변비, 치질, 알러지비염, 여드름, 무좀, 두드러기, 탈모,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안짱다리, 관절염
- **새끼발가락** – 신장관련병, 방광관련병, 자궁관련병, 요도염, 전립선염, 디스크, 관절염, 위염, 당뇨병, 간병

돈보다 귀한 것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 이름하여 소금이다.

싸고 흔하다고 실소(失笑)할지 몰라도 그렇다면 무지의 소치이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은 흔하고 값이 없다. 물, 공기, 햇빛을 어느 누가 그 값을 매길 수 있는가? 그래서 값이 없다. 그 값이 없으니 누가 돈을 주고 산다는 말인가?

생명물질인 소금도 이에 버금가는 것이다. 정말 소중한 것을 값없이, 그것도 마음껏 쓰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은혜이다.

쑥, 마늘, 콩 등도 그 중의 하나이다.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매일 바다로 오물을 흘러보내어 더럽히지만 바닷물은 왜 썩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소금의 역할 때문이다. 소금은 오물을 끌어드린다. 소금의 상당부분은 불순물(간수, 오염물질)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금의 불순물의 양은 점점 더 늘어만 갈 것이다.

간수(염화, 산화, 황산 마그네슘)는 몸 속의 철분, 단백질, 섬유질을 산화하여 파괴한다. 사람은 하루도 소금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먹은 만큼 몸은 이 간수로 인해 노화와 질병이 촉진된다.

반면에 순수한 염분(간수와 불순물이 제거된)은 참으로 신비하다. 짜게 먹어도 물을 켜지 않고 불순물(간수, 오염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던 부작용이 전혀 없다.

염분은 불순물을 당기는 힘이 있어 체내의 염증과 담증(가래)를 제거하고 불순물을 끌어내 체외로 배설시킴으로 몸 속의 막힌 곳을 뚫어준다.

기혈(氣血)이 막히는 것이 병이라고 했다. 순수한 소금은 만병을 물리친다.

소금의 신비는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생명의 재활물질이다.

소금은 광물질로 무기질도 미네날도 아니다. 소금과 물은 그 어떠한 물질과도 다르다. 열에 수축하고 냉에 팽창한다. 또한 소금은 전해질로서 몸에 전기작용을 활성화 하고 삼투압이 강하다. 소금은 물, 빛, 공기의 육각형 결정체이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싱겁게 먹을 것을 권하지만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당뇨나 신장병환자에게는 특히 소금을 먹지 못하게 하지만, 오히려 당뇨나 신장병환자가 소금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 신장에 염분이 부족하면 신장이 썩는다. 순수소금을 먹으면 신장병도, 당뇨병도 즉시 호전된다.

민물고기와 바닷고기 중 어느 것이 더 짤까?

당연히 바닷고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짠 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는 상식을 뒤집는다. 민물고기가 더 짜다.

왜냐하면 바닷고기는 짠 물에서 살기 때문에 소독도 세균도 걱정이 없어 염도가 낮다. 반면에 민물고기는 각종 세균 등에 노출되어 살아감으로 몸 속에 염분을 더 많이 축적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바다에서 멀리 있는 동물과 고등동물일수록 체내에 염도를 높게 쌓아둔다.

달의 인력에 의해 바다가 조수(潮水. 밀물과 썰물)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바로 3.5%에 달하는 소금의 영향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천 근, 만 근이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또한 염분 부족 때문이다. 이 또한 달하고 교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봄철에 몸이 노곤하고 나른해 지는 것도 초목이 동물의 몸 안의 염분을 빼앗기 때문이다.

몸속에 염분이 부족하면 썩고 죽는다. 순수 염분을 많이 섭취 해 보자!